



국제로타리3650지구 제6회 2017 韓日 신세대 국제 교류회 실시

우리 지구 인터랙트, 로타랙트 회원 등 24명 참가,
8월 2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오사카, 교토, 고베 등지에서
한국, 일본 양국 신세대 포럼 및 견학 활동 펼쳐

국제로타리 3650지구 '제6회 신세대 한일 교류회'가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우리 지구 인터랙트 및 로타랙트 회원과 인솔 지도교사 등 총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됐다.

서울용산(서울자동차고) 인터랙트클럽 차상우 지도교사와 덕성여중 인터랙트클럽 홍소연 지도교사를 비롯하여 서울자동차고 인터랙트클럽, 덕성여중 인터랙트클럽, 새한양 로타랙트클럽 회원 등 24명의 우리 지구 신세대 방일 대표단은 8월 2일 RI2640지구(일본 오사카)와 오사카 사카이 시청에서 함께 주최한 환영 교류회에 참가하여 RI2640지구 지역대표와 인터랙트 위원장 등 10여명의 로타리안들과 사카이 시청 다케야마 시장과 하자마 부시장, 오사카 정화고 인터랙트클럽과 하교로모 학원 인터랙트 클럽 회원 20여명, 백두학원 김기주 전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교류회를 가졌다.

또한, 오사카 지역 60년 전통의 재일교포 학교인 백두학원 건국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경표 이사장과 김기주 前이사장, 이종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30여명의 건국고 학생들과 우리 지구 신세대 회원들과 교내에서 합숙을 하며 뜨거운 동포애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다.

또한 8월 3일에는 RI2750지구(일본 도쿄) 나카타 준나 前총재가 대표로 있는 일본 교토의 유명사찰인 다이고지(醍醐寺)를 방문, 백두학원 건국고등학교 재일교포 학생들과 국제 교류회를 하며 친교와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다이고지(醍醐寺)에서 개최된 한국, 일본 양국 청소년포럼에는



오사카 사카이 시청에서 일본 2640지구 인터랙터들과 교류회를 갖은 3650지구 인터랙터 및 로타랙터



문덕환 前총재와 나카타 준나 RI2750지구 前총재를 비롯, 김기주 백두학원 前이사장, 교토 2650지구 로타리안 등이 함께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학생들을 격려했다.

우리 지구 인터랙트와 로타랙트 회원들은 이번 방일 기간 동안 조별 활동과 미션 수행 등의 과제를 수행하며 교토 다이고지와 청수사, 오사카성 등을 견학하고 오사카 유니버설재팬 스튜디오와 우메다, 도톤보리, 난바 등 오사카의 변화가 등을 관광하며 미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국제 감각을 익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3650지구의 신세대 한일 교류사업은 2010-11년도에 인터랙트 지도교사 협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첫 교류회를 실시한 이후 금회까지 6회째를 맞고 있으며, 참가 학생들의 등록비와 함께 지구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여 매년 성황리에 실시되고 있다.



오사카 재일교포 학교인 건국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하는 3650지구 신세대 방문단



3650지구 로타랙트 여대 연합 MT

7월 13일, 14일 양일간 3650지구의 여자대학교 소속 로타랙트클럽들인 이화여대, 태릉(동덕여대), 숙명여대, 서울남산(서울간호대), 덕성여대 등 5개 클럽 회원들이 잠실의 WW스튜디오로 여대연합엠티를 다녀왔습니다.

여대끼리 연합엠티를 다녀온 것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자들끼리 더욱 편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피자과 치킨, 과자와 라면 등을 먹으면서 다른 여대 로타 회원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엠티를 계기로 더욱 교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여대 엠티가 단발성, 일회성이 아니라 오래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글. 덕성 로타랙트 회장 최수지



이화 로타랙트클럽, 46주년 창립총회 개최

이화 로타랙트클럽(후원 서울RC)은 지난 7월 8일 제46년차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날씨가 비가 와서 습하고 굉장히 더웠는데도 정말 많은 내빈 분들께서 이화로타랙트의 창립총회를 축하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작년의 창립총회보다 좀 더 재미있게 준비하기 위해 포토존을 만들어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드린다거나, 창립총회 도중의 이벤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타 로타랙트 분들께서도 참여하시는 형식의 이벤트를 준비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이화 로타랙트 회장 변지연



덕성 로타랙트, 강북청소년수련관서 화분 만들기 봉사

덕성여대 로타랙트클럽(후원 새 강북RC)은 로타랙트 지구연수회 다음날인 7월 22일에 정기봉사자인 강북청소년수련관을 다녀왔습니다.

지구연수회 다음날인 만큼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많은 회원 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는 나만의 걱정인형 화분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화분에 자신만의 꿈 또는 슬로건을 넣어 꾸미고 걱정이 모두 날아가라는 의미로 걱정인형을 만들어 화분에 장식하였습니다.

또 화분에는 공기정화식물인 개운죽을 넣어 완성하였습니다. 아이들도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흥미로워하고 자신만의 화분을 만들면서 자신의 걱정이나 목표를 말하면서 저희와 더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 덕성 로타랙트 회장 최수지



서울문화RC, 물푸레 리틀랙트클럽과 합동 봉사 국군수도병원 병사들을 위한 힐링 음악회

무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11월(금) 오후 4시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의 로비에서는 뜻깊은 음악회가 열렸다.

물푸레 리틀랙트클럽 합창단(단장 경희수, 서울문화RC) 중에서도 특별히 초등학교 소년으로 구성된 물푸레소년 중창단의 힘찬 노래 소리가 입원 중인 병사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병사들은 동생 같은 소년들의 노래를 들으며 연신 웃음을 잃지 않으며 연주 후 소년들의 힘찬 목소리로 “충성”으로 경례할 때 큰 박수로 응원해 주었다.

이외에도 서울예고 1학년 김현주 양의 피아노 독주와 더불어 바이올린 독주가 연주되었으며, 국민대 성악과 학생 10여명이 함께 연주를 하여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서울문화RC(회장 김민태) 소속의 이종원 전총재님을 비롯하여 회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카스타드빵과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300여명의 장병들이 달콤한 간식까지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 행사를 담당하였던 방연주 소령은 “이제까지의 힐링 음악회 중 가장 많은 병사들이 참석했다”고 전하며 “음악회도 다양하고 너무 좋았고 또 간식까지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글. 경희수
(물푸레합창단 리틀랙트 단장, 서울문화RC)



2017 한국 라일라(RYLA) 참가소감

한국 19개 지구 로타랙터들과 함께

Team Building 통한 '신사임당의 리더십'을 알아본 3박 4일



글. 3650지구 로타렉트 대표 김재정(송실남산)

(사)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이 주최한 2017 한국 라일라(RYLA)가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강릉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되어 3박 4일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격적으로 신사임당 관련 팀 빌딩을 하기 전 오죽헌에서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선생님의 업적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명하시는 분의 말씀을 잘 듣고 신사임당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식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신사임당의 리더십을 알아보고 팀 빌딩을 통해 토의 및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4조는 5가지 주제 중 '신사임당 교육법 : 오늘의 교육현장 비교 분석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3박4일 동안 팀 빌딩 시간에 이와 관련 주제로 토의를 하였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다시 간단히 팀 빌딩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강릉 부채길에서 트래킹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릉의 맑은 바다 속에 빠지고 싶을 정도로 물이 깨끗했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다른 지구의 로타렉트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 오전에는 숙소 앞에 있는 동해 바다에서 물놀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다에서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오후에는 하루 종일 팀 빌딩 마무리 및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조는 신사임당과 현대의 교육법의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알아보고 현대 교육에서 신사임당의 교육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폐회식 때 제가 한국 라일라 소감 발표자로서 솔직

담백하게 사람들에게 저의 한국 라일라 참여 소감을 전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참여한 한국 라일라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적인 성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처음에 신사임당이 오만원 권 지폐에 들어갈 인물 후보라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단지 현모양처, 율곡 이이 선생님의 어머니라는 존재만으로 과연 우리나라의 지폐의 인물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을 알고 난 후에는 정말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타 지구이지만 로타렉트라는 하나의 동질감을 갖고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과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3650지구 로타렉트들의 금회기 '같이 걷는 길, 가치 있는 길'이라는 모토처럼 같이 토의를 통해 만들어낸 프로젝트들은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얻은 가치 있는 결과였습니다.

저게 이렇게 값지고 의미 있는 기회를 주신 3650지구 로타리안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것 역시 봉사

서울남산RC 후원, 캔 파운데이션 씬머 아트버스 캠프 자원봉사 참가소감



글. 송실남산 로타렉트클럽 회장 송명현

송실남산 로타렉트클럽 회원 4명(김재정 지구대표, 송명현 회장, 김민지, 오재현)은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남 곡성, 보성에 있는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로 아트캠프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8월 2일 첫 아트캠프 사전모임을 갖고 8월 8일에 전라도 곡성으로 출발하였습니다. 8월 9일 6시 30분에 기상하여 준비를 마치고 곡성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 이동하였습니다. 캔 파운데이션의 선생님들과 송실대 학생들은 아이들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의 프로그램은 '아트스타코리아'에서 우승하신 '신제현'작가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교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퍼포먼스의 주제는 일반적인 사고를 깨는 활동으로, 교실에서 공부하기 싫은, 곧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방향으로 퍼포먼스 컨셉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이해를 하지 못해 쉽지 않았지만 두 번째 세 번 반복해서 수업을 진행하니 곧 잘 이해하고 따라왔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데이터

시각화'를 연구하시는 '민세희' 작가님께서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모이고 프로그램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재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봉사, 어린이날 봉사, 교육 봉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이 봉사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번 아트캠프 봉사활동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역시 봉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봉사의 '참 된 의미'를 깨달은 셈입니다.





끝없는 도전, 함께하는 로타랙트

제13회 스페셜 올림픽 전국하계대회, 경남 창원서 개최
3650지구 로타랙터 47명 참가, 스텝으로 3일간 봉사

District 3650

Rotaract

Rotary Club Partner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제13회 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축제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400여 명이 참가하여 약 524개의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로타랙트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주시는 서창우 3지역대표(서울남산RC)께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은 '끝없는 도전, 함께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대회에 김재정 로타랙트 지구대표를 비롯한 46명의 로타랙터가 봉사자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월 25일 이른 아침부터 잠을 이기고 압구정역에 모든 로타랙터 및 봉사자들이 집합하여 버스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서울부터 창원까지는 거리가 있었기에 도로 틈틈이 위치한 휴게소의 각종 음식들이 저희의 즐거움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가는 길에 스페

셜 올림픽 주체 측에서 제공해주신 물과 음료 또 김밥까지 이른 아침에 끼니를 거른 저희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 창원시에 도착하여 2박3일간 이용하게 될 저희의 숙소인 늘푸른전당에서 짐을 풀고 창원 스포츠파크로 이동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로타랙트 인원들은 시상식 보조, 환경요원 및 주차요원에 배정되었고 배부 받은 상큼한 오렌지색 단체복과 토시, 모자 등의 복장을 착용하고 개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로타랙트를 포함해 용인대 봉사단과 군인 봉사단 등 많은 인원의 봉사자가 있었기에 개인에게 배정된 일들이 힘들지 않았고, 심지어 자유시간까



글. 숙명 로타랙트클럽 회장 서효림

지 넉넉하게 부여 받았기에 로타랙트 내의 친목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첫째 날과는 다르게 둘째 날은 정해진 위치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로타랙터는 장소를 바꿔가며 환경요원로서 정화 활동을 하였고 또 나머지 인원은 정신 없는 시상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숙명 로타랙트 5명은 농구 경기장의 경기 보조로서 감독님과 함께 각 경기의 점수를 기록하고, 모든 선수들과 관중들이 볼 수 있도록 보드에 표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농구경기의 규칙을 모르고, 일반 선수들이 하는 경기가 아니었기에 그 시간이 지루할 것만 같았는데 이내 저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반성했습니다. 선수들은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진지하게 모든 경기에 임했고, 대기 시간에 순진무구하게 웃고 장난을 치던 그들이 경기만 시작하면 서로의 곁을 든든하게 받혀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또한 경기를 보며 1등, 2등 같은 결과만이 그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지 농구를 하고 있고 또 자신들을 호응해주는 관중이 있고, 함께하는 팀이 있다는 것을 즐기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독님의 옆자리에서 경기 규칙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또 선수들 개인의 표정과 움직임에 집중하며 2일간 누구보다 보람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했던 봉사활동은 누군가의 거동을 도와주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결과를 축하하고 또 그들에게 웃음을 지어주며 어떤 봉사보다 보람차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3일을 보냈습니다.

